



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

| 투자전략/시황 Analyst 한지영, RA 유지운



키움증권

미 증시, 호르무즈 해협 불확실성 지속, 7월 CPI 대기심리 등으로 약세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11일(화) 미국 증시는 파키스탄 등 주변국의 미-이란 협상 중재 시도 소식에도, 호르무즈 해협 불확실성 지속, 7월 CPI 대기심리, 엔비디아(-0.02%)의 5,000억달러 AI 인프라 금융 구축을 둘러싼 기대(투자 여력 확대)와 불안(부채 의존도, 수익성)도 공존한 여파로 소폭 약세로 마감(다우 -0.3%, S&P500 -0.3%, 나스닥 -0.6%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+0.9%).

이제 시장은 미국의 7월 CPI 결과에 집중할 전망. 지난 7월 고용 부진 이후 재차 우위를 점한 9월 동결 전망(FedWatch 동결 확률 52% vs 인상 확률 48%)에 추가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벤트에 해당. 8월말 예정된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워시 의장의 발언 수위를 좌우할 수 있는 재료라는 점도 7월 CPI의 중요도를 높이는 요인. 일단 블룸버그 전망치상 전년동월대비(YoY) 기준, 7월 CPI 헤드라인과 코어의 컨센서스는 각각 3.4%(YoY vs 6월 3.5%), 2.5%(YoY vs 6월 2.6%)으로 6월보다 낮아질 것으로 형성된 상황.

이번에는 전년동월대비 뿐만 아니라 전월대비(MoM) 수치도 중요할 것으로 보임. 7월 미-이란 협상 파기 이후 군사충돌 여파로 유가 상승 압력이 발생했으며, 실제 인플레이션을 어느정도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. 현재 전월대비 컨센서스가 헤드라인이 +0.1%(MoM vs 6월 -0.4%), 코어가 +0.2%(MoM vs 6월 0.0%)으로 전달보다 상승할 것으로 형성되는 등 시장에서도 눈높이는 상향 조정해두기는 했음. 따라서, 호르무즈 해협발 에너지 인플레이션 불안심리가 높아진 분위기 속에서 컨센스에만 부합하는 결과만 나오더라도, 주식시장에서는 중립 수준의 재료(=불안감 완화)로 작용하는 시나리오를 베이스로 잡고 갈 필요.

전일 국내 증시는 호르무즈 해협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및 금리 상승 부담으로 장 초반 코스닥 중심의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기도 했으나, 이후 반도체 수출 호조, 대형주 낙폭과대 인식 등으로 코스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(코스피 +0.7%, 코스닥 +0.4%).

금일에는 미-이란 갈등 지속에 따른 유가 상승, 미국 7월 CPI 대기심리에도,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주 상대적 강세, 지수 과매도 인식 등이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면서 전락후강의 장세를 보일 전망. 또 장 마감 후 코어워브(시간외 +13%대)와 슈퍼마이크로(시간외 +6%대)가 호실적 및 신규 수주 증가를 통해 AI 인프라 수요를 확인시켜주면서, 시간외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반도체 등 국내 AI 밸류체인 관련주들의 수급 여건을 개선시켜줄 전망.

더욱이, 코스피의 변동성이 지난 6~7월보다 안정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. 대표적으로 코스피의 미래 예상 변동성을 측정하는 VKOSPI의 레벨 다운이 이를 뒷받침. 6월~7월 중 VKOSPI의 평균은 85pt대를 기록했으며, 6월말 급락기에는 95pt대에 도달할 정도로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상황. 그러나 8월 이후 70pt대로 레벨 다운이 이루어졌으며, 전일에는 61pt대로 5월 8일(60pt)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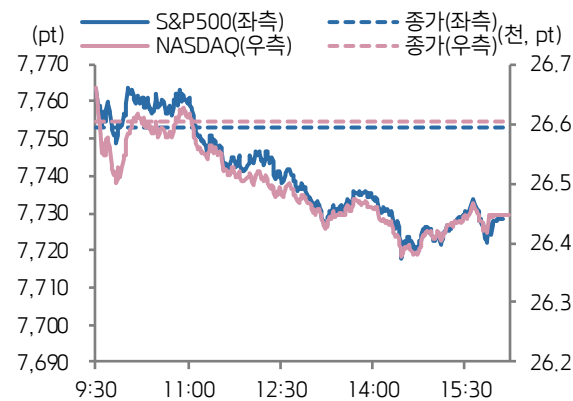
이는 옵션 시장에서 코스피의 극단적인 변동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

는 대목.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영향력 축소, 비반도체, 코스닥, 중소형주로의 수급 분산 등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변동성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요인.

물론 VKOSPI 60pt대는 절대적으로 높은 레벨인 것은 맞음(= 예상 일간 주가 등락률 +/-3.8% vs 과거 VKOSPI 평균 20pt, 예상 일간 주가 등락률 +/- 1.3%). 그럼에도 최근 증시 회복 과정에서 VKOSPI의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7월 폭락 및 변동성의 출력을 높였던 수급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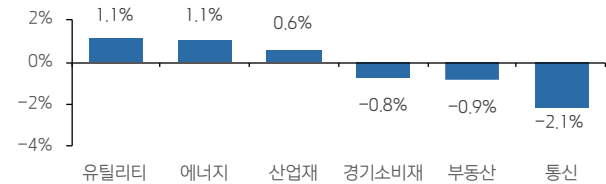
결국, 코스피의 최근 반등 탄력이 그리 강하지 않다는 점이 아쉬움을 유발하고 있긴 하지만, 그간 시장의 방향성 베팅에 혼란을 유발했던 비정상적인 변동성이 주가보다 먼저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에 무게중심을 둘 필요. 이로 인해 소수 업종 쏠림현상, 장중 주가 급등락이 재현될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예상되는 증시 반등에 수급상 연속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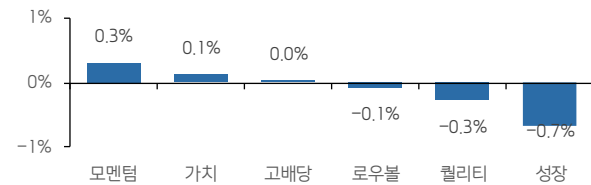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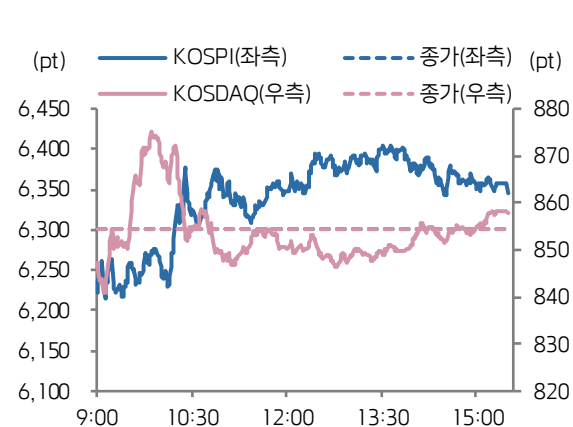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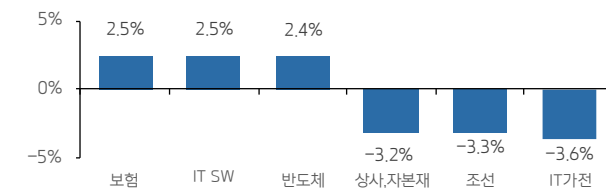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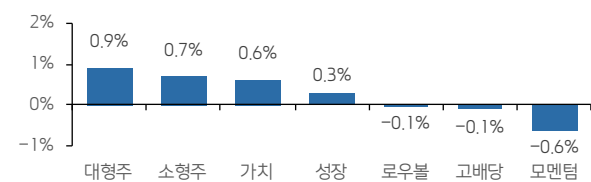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종목

종목	증가	DTD(%)	YTD(%)	종목	증가	DTD(%)	YTD(%)
애플	304.91	-1.09%	+12.16%	GM	89.35	+1.58%	+9.87%
마이크로소프트	503.81	-0.44%	+4.17%	일라이릴리	1,215.02	-1.37%	+13.06%
알파벳	343.80	-3.84%	+9.84%	월마트	113.26	+0.53%	+1.66%
메타	599.12	+0.71%	-9.24%	JP모건	362.04	+0.63%	+12.36%
아마존	272.27	-2.09%	+17.96%	엑손모빌	159.80	+0.01%	+32.79%
테슬라	332.81	+0.58%	-26%	세브론	196.66	+0.9%	+29.03%
엔비디아	217.50	-0.02%	+16.62%	제너럴일렉트릭	113.26	+0.5%	+1.7%
브로드컴	416.08	-1.5%	+20.22%	캐터필러	843.37	+0.69%	+47.22%
AMD	474.32	+1.01%	+121.48%	보잉	233.24	+0.19%	+7.42%
마이크론	868.52	+0.87%	+204.31%	넥스트에라	85.74	+1.2%	+6.8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	외환시장			
지수	가격	DTD(%)	YTD(%)	지수	가격	DTD(%)	YTD(%)
코스피	6,345.53	+0.73%	+50.58%	USD/KRW	1,413.50	-0.32%	-1.81%
코스피200	987.40	+0.98%	+62.94%	달러 지수	99.83	+0.02%	+1.53%
코스닥	857.84	+0.39%	-7.31%	EUR/USD	1.15	-0.01%	-1.74%
코스닥150	1,485.12	+0%	-4.02%	USD/CNH	6.75	+0.01%	-3.29%
S&P500	7,728.20	-0.32%	+12.89%	USD/JPY	159.28	-0.01%	+1.64%
NASDAQ	26,445.45	-0.6%	+13.78%	채권시장	가격	DTD(bp)	YTD(bp)
다우	53,791.85	-0.34%	+11.92%	국고채 3년	3.797	+2.2bp	+84.6bp
VIX	15.28	-1.16%	+2.21%	국고채 10년	4.295	+6bp	+91bp
러셀2000	3,027.12	+0.32%	+21.97%	미국 국채 2년	4.214	-2.7bp	+74.1bp
필라. 반도체	12,098.47	+0.87%	+70.81%	미국 국채 10년	4.688	-1.8bp	+52.1bp
다우 운송	21,297.61	-0.32%	+22.7%	미국 국채 30년	5.240	-1.1bp	+39.7bp
상해종합	3,934.09	-0.82%	-0.88%	독일 국채 10년	3.158	-2.1bp	+30.3bp
항생 H	8,528.10	-1.09%	-4.33%	원자재 시장	가격	DTD(%)	YTD(%)
인도 SENSEX	78,154.25	-0.49%	-8.29%	WTI	83.20	+1.3%	+45.94%
유럽, ETFs	가격	DTD(%)	YTD(%)	브렌트유	88.91	+1.36%	+46.11%
Eurostoxx50	6,551.22	+0.24%	+13.12%	금	4,441.10	+0.48%	-1.25%
MSCI 전세계 지수	1,150.63	-0.23%	+13.41%	은	64.94	-0.52%	-8.03%
MSCI DM 지수	5,007.04	-0.02%	+13.02%	구리	663.40	+0.27%	+16.75%
MSCI EM 지수	1,670.09	+0.74%	+18.92%	BDI	3,083.00	-0.19%	+64.25%
MSCI 한국 ETF	167.24	+2.53%	+72.02%	옥수수	460.50	-0.27%	+0%
디지털화폐	가격	DTD(%)	YTD(%)	밀	648.25	-1.67%	+14.79%
비트코인	63,694.21	-0.65%	-27.33%	대두	1,168.75	-0.91%	+9.79%
이더리움	1,880.71	+0.14%	-36.84%	커피	315.70	+0.57%	+0.37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8월 11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